

##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김 혜 민<sup>†</sup>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강사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LGB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LGB 내담자의 인식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LGB 참가자 1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무엇인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67개의 핵심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핵심 문장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분류한 문항에 대해 다차원적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여하기-거리두기와 관습적 반응-상담자적 반응 차원의 2차원이 나타났으며, ①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② 이성애 중심주의 ③ 문제화 ④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⑤ 타자화의 5가지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별 중요도는 타자화, 이성애 중심주의,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문제화,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 제고를 돕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LGB 내담자,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성소수자 상담, LGB에 대한 차별, 개념도 방법

\* 본 연구는 김혜민(2021)의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GB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개발 및 타당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혜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00

Tel: 031-412-7487, E-mail: hyemin79@hotmail.com

우리는 여러 종교,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신체 조건,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 형태 등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그 자체로 수용되고 포함되기보다 기존 주류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거나 억압되는 경우가 많다(문성훈, 2005). 또한 주류 중심적 사회의 메커니즘(mechanism)은 이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배제를 유지하고 심화시킨다(이종일, 2016). 이처럼 주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나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명명한다(정근식, 2013).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등이 주로 언급된다(박수미, 정기선, 2006; 이경희, 2015;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이 중 성소수자는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 문화가 강한 국내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김상학, 2004). 국가별 성소수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은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에 대한 응답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성소수자 수용 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주유선 등, 2019).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동성애 수용성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Smith, 2011;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4).

이는 유교적 가족 중심 문화와 개신교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ich & Eliassen, 2020). 유교적 가족중심주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대를 잇는 것을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로 여기며 성별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구분하고 그것에 충실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김덕균,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은 유교적 기대를 저버리는 중대한 잘못으로 치부된다. 또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기독교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Pew Research Center, 2010), 기독교인 중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통계청, 2015).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 힌두교, 정교회 기독교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 수준이 낮으며(Adamczyk & Pitt, 2009), 국내 개신교의 90%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은(Lee, 2006) 성소수자에 대한 국내의 낮은 수용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롭기 어렵다(Sue & Sue, 2003).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의 낮은 성소수자 수용 수준은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 본인의 편견을 인식하도록 돕고 관련 이해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지침을 제정하여 교육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dvisory Committee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Development, 2014;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2013). 또한 다문화 상담을 상담자 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규명하고 있어(정지선, 2020), 미국심리학회(APA)가 인준한 모든 상담심리 및 임상-상담심리 통합프로그램에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이와 같은 지침과 제도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고 관련 지식과 이해를 높여 성소수자 상담역량을

증진시킨다(Rivers & Swank, 2017). 하지만 국내에는 학회 차원의 성소수자 상담지침이 부재하며, 일반 대학원 과정에서 성소수자 상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김은하 외,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산하 LGBT 상담연구회에서 미국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슈 상담학회(the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ALGBTIC)의 LGBQQIA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역량 지침을 번역하고 공유하여(LGBT 상담연구회, 2019)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지만, 국내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공식적인 지침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국내 사회 문화적 배경과 심리학계의 상황에서 상담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고, 그로 인해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요구된다.

북미를 중심으로 상담장면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양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은 고의적이고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모호한 차별을 포함하여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Nadal, 2013; Sue & Capodilupo, 2008; Fisher, 2015). Sue와 동료들은(2007)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소수자이거나 소외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상(everyday)에서 겪게 되는 모욕과 폄하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모욕과 폄하는 고의적이고 명백한 차별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며 비의도적이고 때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미묘한 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Sue와 동료들은(2007) 차별에

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미묘한 공격(microassault), 미묘한 모욕(microinsult), 미묘한 비타당화(microinvalid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미묘한 공격은 상대를 공격하고 피해를 주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언행을 의미한다. 미묘한 공격의 양상이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차별<sup>1)</sup>(old-fashioned discrimination)과 유사하다. 미묘한 모욕은 소수자에 대한 비하, 멸시, 모욕적인 언행을 의미한다. 미묘한 모욕은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행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한다(Ong, Burrow, Fuller-Rowell, Ja, & Sue, 2013). 미묘한 비타당화는 소수자의 생각, 감정, 경험적 현실을 배제, 부정 또는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Noh, Kaspar, & Wickrama, 2007).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주류의 가치와 당위에 의해 구축된 견고한 사회체제와 문화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Sue et al., 2007).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특히 교묘한 형태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심각성 또한 가벼이 여겨진다(Gonzales, Davidoff, Nadal, & Yanos, 2015). 하지만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소수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1) 전통적 차별은 편협한 정상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한다(Hughes, 1997; Morrison, M. A., Morrison, & Franklin, 2009). 일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의 대중교통 좌석을 분리하는 것,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장애인의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것, 성소수자를 죄악시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찰진압(police brutality) 등이 전통적 차별에 해당한다.

서 주의를 요한다(Bissonette & Szymanski, 2019; Meyer, 1995, 2003; Szymanski & Ikizler, 2013).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다(Nadal, Issa, Griffin, Hamit, & Lyons, 2010; Nadal et al., 2011; Sue & Capodilup, 2008).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과 같이 이성 관계만을 상정한 용어 사용, 동성애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HIV/AIDS 확산의 주범이라는 편견, 성소수자는 모두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예: 게이들은 패션을 좋아해)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상담자 역시 이성애 중심적 사회문화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에서(Sue & Sue, 2003),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상담장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Constantine, 2007). Nadal과 동료들(2010)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이성애 중심적 용어 사용(use of heterosexist terminology)
- ② 이성애 규범적 문화와 행동 지지(endorsement of heteronormative culture/behaviors)
- ③ LGBT 경험의 보편성 가정(assumption of universal experience)
- ④ 타자화(exoticization)
- ⑤ 성소수자 내담자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음(discomfort/disapproval of LGBT experience)
- ⑥ 이성애 중심주의/트랜스 혐오를 부정(denial of societal heterosexism/transphobia)
- ⑦ 성적 병리화 및 이상성을 가정(assumption of sexual pathology/abnormality)
- ⑧ 자신의 이성애 중심주의/트랜스 혐오를 부인(denial of individual heterosexism/transphobia)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Shelton과 Delgado-Romero(2011)는 상담 경험이 있는 LGBQ 16명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겪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 ① 현재 문제의 원인을 성적지향으로 가정(assumption that sexual orientation is the cause of all presentint problems)
- ② 성적지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최소화(avoidance and minimizing of sexual orientation)
- ③ 성소수자 내담자들의 경험을 보편화(attempts to overidentify with LGBQ clients)
- ④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고정 관념적 가정(making stereotypical assumptions about LGBQ clients)
- ⑤ 이성애 규범적 편향(expressions of heteronormative bias)
- ⑥ 성소수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assumption that LGBQ individuals need psychotherapeutic treatment)
- ⑦ 성소수자로서 정체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identifying as LGBQ)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상담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성소수자 내담자들은 작업동맹, 치료 효과와 상담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MacDonald, 2013; Spengler, Miller, & Spengler, 2016),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기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Galgut, 2005). 상담자가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관계라는 특성 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Shelton & Delgado-Romero, 2011), 상담에서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일상에서의 마이크로어그레션보다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이해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사라, 유성경(2017),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2007), 홍예진(2019)의 연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국내 상담자의 태도를 탐색

하였지만, 이는 상담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내담자가 인식하는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차별적 태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2018),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2019)의 연구에서 LGB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긍정적인 상담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모집하였고 일반적인 상담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

북미에서 성소수자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가 이루어졌다(Shelton & Delgado-Romero, 2011).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인식이 다르며(주유선 외, 2019), 성소수자 상담 교육 및 수련 환경이 상이하므로(김은하 외, 2019)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성소수자와 상담자의 특성이 반영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 제고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Lesbian), 게이(남성 동성애자, Gay), 양성애자(Bisexual)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한정하여 개념도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한정된 이유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sup>2)</sup>, 젠더퀴어(Genderqueer)<sup>3)</sup> 등과

2) 트랜스젠더(Transgender) :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성소수자

같은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젠더리즘(Genderism)<sup>4)</sup>과 시스젠더가 아닌 성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Nadal, Skolnik, & Wong, 2012). 이러한 점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차이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마이크로어그레션 피해 당사자의 경험적 현실(experiential reality)에 관한 것으로 차별 당사자의 경험적 실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연구 방법이 적합하다(Sue, 2017). 개념도 방법은 집단이나 개인들이 특정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한 방법(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 2007)으로 차별 당사자인 LGB 내담자들의 경험적 현실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데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이 구성하는 방식대로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여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Paulson & Worth, 2002;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그리고 개념도 방법은 참조자료가 부족한 탐색 단계의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가 부족한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Johnsen, Biegel & Shafran, 2000; Paulson et al., 1999).

부모모임, 2018)

- 3) 젠더퀴어(Genderqueer) :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종류의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성소수자부모모임, 2018)
- 4)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모습이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성별 구분이 모호한 신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의미(Browne, 2004)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먼저 차별(한국여성의전화, 2015), 미시적 차별(문영민, 박송이, 강혜린, 2019), 미묘한 차별(김예은, 연규진, 2018; 김우자, 2020; 이솔희, 2019; 정지선, 2018)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Sue와 동료들(2007)이 정의한 마이크로어그레션, 즉 노골적 차별과 비의도적인 미묘한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croaggression을 그대로 음차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과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모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LGB 내담자가 인식하는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참여자

2019년 9월에 트위터, 페이스북, 경기도 소재 C대학 홈페이지, 마포구 소재 사설 상담소를 통해 상담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

성애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 안내문에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설명과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게이(2명), 레즈비언(3명), 양성애자(14명)로 정체화한 총 19명의 LGB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개념도 연구 방법에서 연구참여자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최소 10명 이상 40명 이내를 권장한다(Kane & Trochim, 2007).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19명의 연구참여자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 중 2명은 지방에 거주하여 이메일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6.1세(최소 21세, 최대 32세)였으며 학력 분포는 고졸에서부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이 그간 만났던 상담자의 평균수는 3.2명(최소 2명, 최대 6명), 상담받은 기관은 중복응답으로 대학 내 상담실(57.9%), 사설 상담실(52.6%), 정신건강의학 병원(36.8%), 중, 고등학교 내 상담실(15.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15.8%), wee 센터(10.5%), 기타(10.5%)였다. 참여자들이 만난 상담자의 유형은 중복응답으로 심리상담사(84.2%), 정신건강의학 전문의(31.6%), 임상심리사(21.1%), 모름(21.1%), 상담교사(5.3%)를 포함하였다. 상담 횟수는 1회부터 200회까지로 다양하였다.

### 연구 평정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한 연구 평정팀은 연구자 외 평정자 3인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성소수자 상담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성소수자

상담 경험이 있었다. 평정자 1은 심리학 박사 과정으로 성소수자 관련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었고, 다수의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였다. 평정자 2는 심리학 박사과정으로, 성소수자 상담 연구 참여 경력이 있고 다수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이 있었다. 평정자 3과 평정자 4는 심리학 박사이며, 평정자 3은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었다. 연구 평정팀은 각 면담 별 축어록을 분석하여 핵심 문장을 도출, 종합, 편집하였다.

#### 연구 절차

LGB 내담자가 인식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고 개념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6단계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을 위한 초점질문(focus question)을 제작하였다. 적합한 초점질문을 도출하기 위해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개념도 연구 방법으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명, 다수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이 있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 2명과 논의를 거쳤다. 최종 초점질문은 “당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상담자가 노골적이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별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상담자의 다양한 차별적 태도는 무엇입니까?”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연구자가 종합하였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찾아가거나 연구참여자가 연구자가 근무하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면담하였

으며, 지방 거주자인 2명은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30~4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에 대한 안내,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관한 설명, 면담에서 받게 될 질문을 문서로 제공하였다.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설명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노골적인 차별에서부터 미묘한 차별적 언행을 의미한다’, ‘미묘한 차별은 상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이 도움이 되었던 경우에도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격적인 면담 시작 전,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초점질문과 더불어 상담자의 태도를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2명에게는 다른 연구참여자와 같은 내용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 설명과 인터뷰 질문이 제공되었으며, 전화 통화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면담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동의로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평정팀은 면담 축어록을 4회에 걸쳐 Giorgi(1985)의 질적분석 4단계 절차를 따라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1) 내용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감을 얻기 위해 모든 응답 내용을 읽고 파악하였다. (2) 연구 목적을 염두에 두어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했다. (3) 의미 단위들을 다시 읽고 의미 단위들이 연구 주제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변형시켰다. (4) 마지

막으로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잘 보여주는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의 의미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경우(예: 다시 한 번 더 상담자에게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밝혀야 한다는 게 불편했어요), 면담 축어록을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정팀은 각 축어록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진술문들을 추출하였다(총 169개). 그런 다음 도출된 진술문들을 모으고, 공통되게 추출된 진술문과 그렇지 않은 진술문을 구분하였다. 공통되지 않은 진술문들은 논의를 통해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것들(예: 제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항상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 성적지향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들(예: 그럼 둘의 관계는 헤테로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등)은 제외되었다. 의미의 왜곡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자료 분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삼각 검증 작업을 시도하였다(예: ‘그 상황에 대한 질문과 탐색을 많이 했다’를 진술문 28에 통합시킴). 이를 위해 연구자를 제외한 평정팀 3인, 초점질문 개발에 참여했던 성소수자 상담 전문가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최종 진술문에 대해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과 개념도 방법으로 박사논문을 취득한 개념도 방법 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았다. Kane과 Trochim(2007)은 진술문을 100개 이하로 종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69개의 진술문을 모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69개의 최종 진술문들을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리된 69개의 최종 진술문들

을 카드로 만들어 이전 단계에 참여했던 19명의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분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17명은 대면하여 분류작업을 실시하였고, 지방 거주자인 2명은 우편을 통해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69개의 진술문을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것끼리’,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게 하고, 같은 범주로 모인 진술문들의 집합에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의 범주에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진술문을 한 범주로 모이지 말라는 조건을 두었다(Paulson & Worth, 2002; Paulson et al., 1999). 그리고 각 진술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분류한 자료를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 것은 1, 같은 집단으로 분류한 것은 0으로 코딩하여 개인 유사성 행렬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인 유사성 행렬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 group similarity matrix)를 만들었다(Bedi, 2006). 그리고 GSM을 metric MD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DS는 개체 간의 비유사성을 사용하여 공간상에 개체를 나타낼 때, 개체들 사이의 비유사성을 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반복과정을 거친다. 표현된 최적 위치의 적합성은 Kruskal(1964)의 STRESS(Standardized Residual Sum of Squares)를 이용하였으며, stress 값의 기준으로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적합도 평균 범위인 .205~.365를 적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여 x축과 y축의 좌푯값을 산출하였고, 각각의 진술문들을 지도 위에



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차원으로 분류된 좌푯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분석의 방법으로는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 Ward 방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Kane & Trochim, 2007).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 단계에서 평정한 각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거리와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군집으로 묶인 진술문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군집의 수를 결정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개념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같은 범주로 자주 묶인 진술문들은 가까이,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던 진술문들은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념도의 군집과 차원의 명명은 참여자들이 명명한 제목과 평정팀에 참여했던 2명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군집은 군집 내 문항들의 공통된 특성을 근거로 명명되었고, 차원은 각 차원의 극단에 위치한 군집과의 비교와 근접한 군집 내 진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다(김선경, 2011; Kunkel & Newsom, 1996). 여섯 번째 단계인 활용은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결 과

### 차원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LGB 내담자가 인식

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69개의 최종 진술문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22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M=5.8$ ,  $SD=4.8$ ).

차원의 수는 합치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박광배, 2000). 합치도는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으로 판단할 수 있다(최현철, 2013). 차원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값은 0에 가까워져 높은 합치도를 보이지만, 해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박광배, 2000; Borg & Groenen, 1997;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 2차원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316으로 나타나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권혜경, 이희경, 2013; 최윤정, 김계현, 2007;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또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는 .485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당도를 확보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각 진술문의 좌푯값을 통해 진술문의 위치가 근접해 있을수록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유사하게 인식된 것이며, 진술문 간 거리가 멀수록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선 x축에 있는 진술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적 방향의 진술문들은 LGB를 이성애 규범과 같은 관습적 가치를 지향하는 상담자의 반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부적 방향의 진술문들은 비이성애인 성적지향을 심리적 문제로 가정하여 탐색하거나, 성소수자에 관한 이해 부족과 같은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상담자적 반응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y축의 정적 방향에 있는 진술문들은 LGB로 정체화한 내담자의 성적지향을 존중하지 않고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을 이상(異常)시하며 관여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부적 방향은

LGB를 비가시적인 타자로 치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x축을 ‘관습적 반응’ 대 ‘상담자적 반응’으로, y축을 ‘관여하기’ 대 ‘거리두기’로 명명하였다.

### 군집

Trochim(1993)은 개념도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 기준이란 없으며 최적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 주제의 맥락과 특성에 맞게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군집의 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념도 선행연구들(김혜민, 유금란, 2020; 권혜경, 이희경, 2013;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진, 손하림, 2019)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된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군집 간 진술

문과 군집 내 진술문을 검토하여 군집 간의 차별성과 각 군집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5개의 군집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 수의 평균을 넘지 않도록 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5개의 군집은 연구참여자들이 명명한 제목을 참조하고 평정에 참여했던 2명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군집의 특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명명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군집 2는 이성애중심주의, 군집 3은 문제화, 군집 4는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군집 5는 타자화로 명명하였다. 그림 1에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이 반영된 개념도가 제시되었다. 군집 1은 상담자가 LGB 내담자의 성적지향 원인을 확인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의 원인을 성적지향에 귀인하는 시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라고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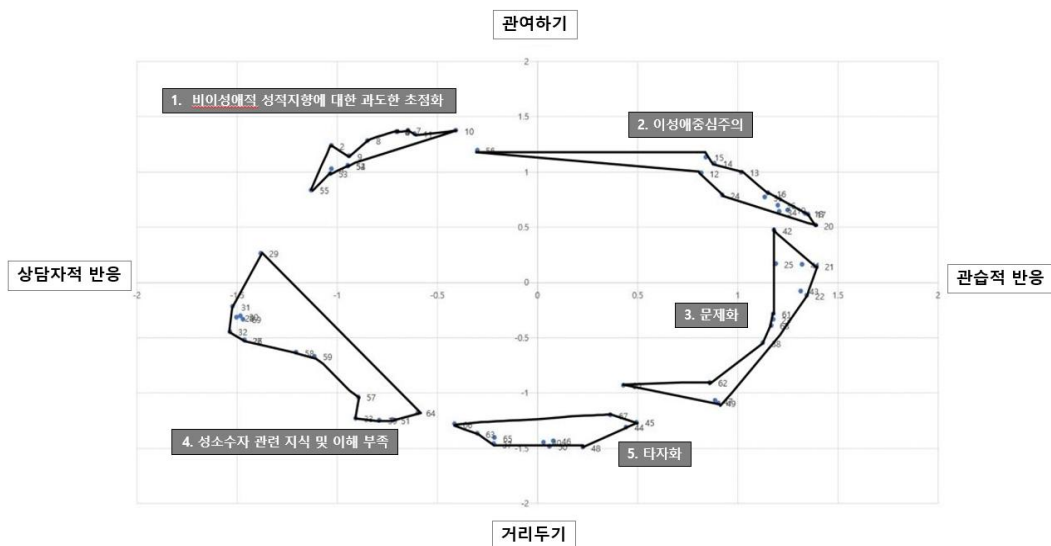


그림 1. 69개 진술문에 대한 개념도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평균

	평균
<b>군집 1.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15문항)</b>	<b>4.32</b>
1. 상담자는 아버지와의 문제를 성적지향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	3.93
2.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여성을 통해 충족한다고 상담자가 말했다.	4.29
3.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성적지향을 연결 지어 물어봤다.	4.43
4.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고 상담자가 말했다.	4.50
5. 상담자는 내가 남성과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4.29
6. 상담자는 내가 한국 남성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성들과의 관계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4.36
7. 상담자는 내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껴서 레즈비언이 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4.14
8. 상담자는 나에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다.	4.21
9. 심리검사 보고서에 양성애의 이유를 평가했다.	4.50
10. 상담자는 내가 원래 이성애자인데 머릿속에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4.79
11. 상담자는 나의 마음이 불안정해서 동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4.57
12. 상담자는 심리적 불안정감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4.21
13. 내 불안의 원인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임을 감춰서 불안한 거라고 상담자가 말했다.	4.43
14. 상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했다.	4.29
15. 부모님께 의지를 못 하는 건 성소수자인 걸 숨겨서 그런 거라고 상담자가 말했다.	3.93
<b>군집 2. 이성애 중심주의(14문항)</b>	<b>4.35</b>
16. 상담자는 양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이나 동성을 선택하라는 듯이 말했다.	4.86
17. 상담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연애 감정이 맞는지 확인했다.	4.07
18. 상담자는 내가 성소수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지 물어봤다.	4.29
19. 나의 동성에 대한 끌림을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상담자가 말했다.	4.79
20. 남자친구가 있다는 상담자의 질문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냐고 물어봤다.	3.57
21. 상담자는 내가 당연히 이성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4.07
22. 난 애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상담자는 남자친구라고 지칭했다.	4.36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평균 (계속 1)

19. 상담자는 나와 여자친구 관계에서 누가 남자 역할이고 여자 역할인지 물었다.	4.50
20. 상담자는 이성 연애를 행복의 표본으로 표현했다.	4.79
24. 심리검사 보고서에서 내가 이성 교제와 이성과의 결혼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4.00
34. 동성연애와 이성 연애에 관해 얘기했는데 상담사는 이성 연애 관계에 더 치중하였다.	4.29
35. 상담자는 나의 동성 연인을 친구라고 지칭했다.	4.21
36. 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지만, 상담자는 남자친구라고 지칭했다.	4.64
56.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이기 때문에 의지하기 어렵고 불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상담자가 말했다.	4.50
<b>군집 3. 문제화(14문항)</b>	<b>4.20</b>
21. 상담자는 동성연애를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	4.29
22. 상담자는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사례를 언급하며 동성애를 치료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4.93
23. 상담자에게 내가 만나는 애인이 동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록지에 뭘 더 많이 적었다.	3.43
25. 상담자에게 동성애인이 생겼다고 얘기하니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반응했다.	4.36
38. 상담자는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애 얘기로 상담을 끌고 갔다.	4.14
41. 상담자는 이성을 사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4.64
42. 이성 연애를 한다고 하니 상담자는 안심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4.79
43. 상담자는 동성연애는 힘들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3.93
47. 문제없다고 답한 성관계에 대해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4.50
49.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담자가 갑자기 동성 연인과의 성관계 얘기를 꺼냈다.	4.57
60. 상담자는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다.	4.00
61. 상담자는 동성과의 동거는 더 이해받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3.64
62. 지금처럼 쿼이프렌들리 하지 않은 곳에서도 오픈할 수 있냐고 상담자가 물어봤다.	3.36
68. 상담자는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4.21
<b>군집 4.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15문항)</b>	<b>3.71</b>
26.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질문이 많았다.	3.71
27. 상담자는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헛갈렸다.	3.36
28. 상담자는 내가 차별이라고 느낀 이유를 물어봤다.	3.07
29. 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을 때 상담자는 내가 사회에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4.07
30. 상담자는 나에게 차별을 느끼는 상황을 물어보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3.29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평균 (계속 2)

31. 상담자는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의 사적인 정보(예: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3.36
32. 상담자는 내가 성소수자인 것이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64
33. 상담자는 게이 같지 않나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4.64
39. 상담자는 성소수자를 처음 봤다고 말하며 신기해했다.	4.36
51. 상담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3.07
57. 상담자는 나의 성적지향과 관련한 정체성을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86
58. 상담자는 너무 조심스러워했다.	3.07
59. 성적지향과 관련한 주제가 나오면 침묵이 많았다.	3.71
64. 본인은 성소수자가 아니라서 몰랐다고 했다.	3.86
69. 상담자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4.57
<b>군집 5. 타자화(11문항)</b>	<b>4.42</b>
37.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끌림에 대해 상담자는 흥미롭다고 말했다.	4.07
40. 상담자는 나에게 이전에 상담한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4.14
44. 동성애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상담자가 말했다.	4.57
45. 상담자는 동성애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4.50
46. 상담자는 자기 시대에는 너무 금기시해서 문제였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 다 해보려고 해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4.93
48. 상담자는 동성 간의 섹스가 에이즈와 성병 위험과 관련이 많다고 말했다.	4.93
50.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임신을 자기복제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5.00
63. 퀴어 얘기가 나오자 상담자가 00씨도 “그런 거냐”고 물어봤다.	4.14
65. 상담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가설과 입장을 고수하였다.	4.86
66. 상담자는 나를 동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4.43
67. 상담자는 내가 과거 차별 경험을 담담하게 말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3.07

하였다. 군집 2의 경우, 이성 간의 교제만이 유일하며, 이성애적 관계만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상담자의 반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성애 중심주의’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을 문제시하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화’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LGB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과 관련한 상담자의 반응이라는 맥락에서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LGB를 상담자 자신과 다른 열등한 존재로 분류하고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타자화’로 명명하였다.

표 1에는 각 군집별 진술문과 중요도의 평균이 제시되었다. 각 군집의 중요도 평균을

살펴보면 1군집(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은 4.32점, 2군집(이성에 중심주의)는 4.35점, 3군집(문제화)은 4.20점, 4군집(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는 3.71점, 5군집(타자화)는 4.42점으로 2군집(이성에 중심주의)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군집(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3군집(문제화), 4군집(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하여 LGB 내담자들이 인식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LGB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2차원의 좌표상에 5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차원은 ‘관여하기-거리두기’의 차원과 ‘관습적 반응-상담자적 반응’ 차원이 나타났다. 군집은 ①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② 이성에 중심주의 ③ 문제화 ④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⑤ 타자화의 5가지 군집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GB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관여하기-거리두기’의 축과 ‘관습적 반응-상담자적 반응’ 축의 2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축의 ‘관여하기’는 이성애 규범적 태도를 전제한 상담자의 접근을 반영하며 ‘거리두기’는 LGB 내담자를 이질적인 타자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LGB 내담자들에게 상이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여하기’ 차원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성적지향을 연결 지어 물어봤다(3번)’, ‘상담자는 내가 원래 이성애자인데 머릿속에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10번)’, ‘내 불안의 원인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임을 감춰서 불안한 거라고 상담자가 말했다(53번)’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진술문에는 LGB 내담자의 성적지향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성애 규범적인 태도로 내담자에게 접근하고 관여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반영되었다. 반면 ‘거리두기’에 속한 진술문에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끌림에 대해 상담자는 흥미롭다고 말했다(37번)’, ‘상담자는 동성애 집단이라고 표현했다(45번)’, ‘본인은 성소수자가 아니어서 몰랐다고 했다(64번)’와 같이 거리두기(distancing)에서 비롯된 무지, 타자화와 관련한 상담자의 태도가 포함되었다. 이는 거리두기가 차별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Lott(200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Lott(2002)에 의하면 거리두기는 개인 간 상호작용이나 제도 속에서 노골적 또는 간접적으로 존재하며, 타자화(designation as other), 평가절하(devaluation), 배제(separation), 무지(ignorance)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타자화’,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문제화’의 군집이 ‘거리두기’ 차원에 포함되어 Lott의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x축의 ‘관습적 반응’에는 ‘문제화’, ‘이성애 중심주의’와 ‘타자화’의 일부가 포함된다. 관습적 반응에는 ‘상담자는 내가 당연히 이성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다(17번)’, ‘상담자는 이성 연애를 행복의 표본으로 표현했다(20번)’, ‘상담자는 이성을 사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41번)’와 같은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성애 중심 사

회 문화적 배경에 영향받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반영한다. 반면, ‘상담자적 반응’ 차원은 ‘상담자는 아버지와의 문제를 성적지향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1번)’, ‘상담자는 내가 차별이라고 느낀 이유를 물어봤다(28번)’, ‘상담자는 나의 성적지향과 관련한 정체성을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57번)’와 같이 내담자의 호소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로서 반응하고 개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군집으로 ‘이상성을 가정’,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 ‘타자화’와 ‘이성에 중심주의’ 일부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LGB 내담자들은 심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상담자적 반응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습적 반응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 도출된 군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집 1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에는 내담자의 호소문제의 원인을 성적지향에 귀인 하거나 내담자의 성적지향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가 반영되었다. ‘상담자는 심리적 불안정감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52번)’, ‘상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했다(54번)’, ‘부모님께 의지를 못하는 건 성소수자인 걸 숨겨서 그런 거라고 상담자가 말했다(55번)’의 진술문이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과도한 초점화’ 군집은 성소수자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Pachankis & Goldfried, 2004), Shelton과 Delgado-Romero(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LGBQ 내담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성적지향에 귀인하는 상담자의

반응을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상담 주제를 성적지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내담자들은 당혹감, 분노, 혼란과 부정당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아버지와의 문제를 성적지향과 연관지어 생각했다(1번)’,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여성을 통해 충족한다고 상담자가 말했다(2번)’,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성적지향을 연결 지어 물어봤다(3번)’와 같은 진술문은 상담자가 LGB 내담자의 성적지향 원인을 탐색하자 하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은 비정상이라는 전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김승섭, 2016),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적지향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에 대해 ‘제가 양성애자라고 하니까 과거에 성폭행당한 적 있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제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남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느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꺼낼 수 없겠다. 그래서 다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등과 같은 불신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내담자의 필요와 무관하게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에 과도하게 초점화하는 것은 내담자의 다층적인 삶의 구성을 단순화시켜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한하고, 적합한 사례 개념화와 치료적 개입을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을 병리

적으로 보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Pachankis & Goldfried, 2004). 이러한 관점은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을 교정(reparative)하기 위한 전환 치료의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상담사,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전환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현실이다(전환 치료 근절 운동 네트워크, 2017). 전환 치료는 내담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을 증가시키는 등 성소수자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APA, 2009). 한국 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에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윤리적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치료기법 및 관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다.

군집 2 ‘이성애 중심주의’에는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간주하고, 이성 연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전제하는 진술문들이 포함되었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LGB 내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Bryan, 2017; Nadal et al., 2010; Platt & Lenzen, 2013; Sue & Capodilup, 2008).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성애 중심주의’는 LGB 내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이 상담실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상담자의 이성애 중심적 태도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 속 차별이 상담실 안에서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상담자는 자신이 받은 사회 문화적 영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성소수자 상담의 핵심역량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편견과 편향에 대한 상담자의 자각을 강조한다(Bidell, 2017).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2020)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의 하위 요인에 LGBT에 대한 상담자 본인의 ‘태도 인식’이 포함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군집 3 ‘문제화’는 LGB 내담자의 성적지향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Shelton과 Delgado-Romero(2011)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도출된 ‘성소수자로서 정체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identifying as LGBTQ)’는 본 연구의 ‘문제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상담자는 동성연애를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한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21번)’, ‘상담자는 이성을 사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41번)’, ‘지금처럼 퀴어프렌들리 하지 않은 곳에서도 오픈할 수 있냐고 상담자가 물어봤다(62번)’와 같은 문항들은 성적지향이 드러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비이성애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벽장 속에 숨기(closet)’를 종용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국내의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피하고자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가시화는 결과적으로 LGB 내담자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있어 악영향을 초래하는 제반 조건을 형성시킨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할수록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과 실제 자신과의 간극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Bergart, 2004).



군집 4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은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분류이다. 하지만 국내의 성소수자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이영은, 2020). 이러한 국내와 해외 연구간 차이는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국내 상담심리학계의 관심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관련 연구 및 교육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을 느낄 때,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질 확률이 높으니까 게이 섹스는 더러워 이런 편견들이 있으니까 성적인 얘기는 게 꺼려지는 게 분명히 있고 문란하게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별받은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런 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상담자들이 LGBT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상담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음에는 LGBT 전문 선생님께 가야 제가 불편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와 같은 불안감,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불편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은 내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실망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정은 외, 2019; 이영은, 2020).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은 비단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성소수자 상담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낮숙과 이해 부족은 탐색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만들며(유하은, 권경인, 2020), 공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박수현, 2010). 이에 국내 성소수자 관련 의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특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 ‘타자화’ 군집은 상호 존재적 개념으로 성적지향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LGB를 열등한 존재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성애자와 다른 집단으로 규정짓는 반응을 포함한다. ‘상담자는 동성애 집단이라고 표현했다(45번)’,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임신은 자기복제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50번)’, ‘퀴어 얘기가 나오자 상담자가 00씨도 그런 거냐고 물어봤다(63번)’, ‘상담자는 나를 동정하는 태도를 보였다(66번)’, ‘상담자는 내가 과거 차별 경험을 담담하게 말해서 놀랐다고 말했다(67번)’는 LGB를 이질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편견을 견고화한다. Nadal과 동료들(2011)은 LGB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타자화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LGB 내담자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도 타자화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자는 동성 간의 섹스가 에이즈와 성병 위험과 관련이 많다고 말했다(48번)”는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이성애가 아닌 성적지향을 병리화(sexual pathology) 하는 태도이다(Nadal et al., 2010; Sue & Capodilup, 2008). 특히 에이즈 감염의 원인을 동성애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동성애

자에 대한 혐오를 심화시켜왔던 맥락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이 요구된다.

셋째, 각 군집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타자화(4.42)’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에 중심주의(4.35)’, ‘이상성을 가정(4.32)’, ‘문제화(4.20)’,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3.7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타자화’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LGB를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명칭 사용, 그리고 LGB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통해 LGB를 폄하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LGB가 상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시하는 조건이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이러한 맥락에서 LGB 내담자들은 상담장면에서 발생하는 ‘타자화’를 민감하게 인식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상담자의 명백한 차별적 태도인 동성애 혐오 및 공포에 대한 조명만 이루어졌을 뿐(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의 측면이 간과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내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자의 시도와 개입이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이성애적 성적지향의 원인을 탐색하거나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성적지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성소수자 내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 오히려 내담자를 돕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는 점에서 은밀한 형태의 차별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관련 지식 및 이해 부족과 관련된 상담자의 반응 역시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태도라는 점에서 미묘한 차별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처럼 본 연구는 상담자의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은밀한 차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묘한 차별은 상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LGB 내담자에게 미묘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과 태도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자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LGB 내담자 당사자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상담자의 언행에 대한 경험의 주체로서 LGB 내담자가 지각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동성애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가 보고되었으나(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이와 관련한 내담자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Sue와 Sue(2003)는 상담자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담자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차별과 관련한 LGB 내담자의 경험적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LGB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LGB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정도, 성적지향에 대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상담자-내담자 간

인식 차이 분석,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상담 효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은 해외와 다른 국내의 상황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은하, 신운정, 이지연(2019)은 성소수자 상담을 포함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 개발하고 제안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상담 전공 대학원을 위한 다문화 상담 과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다문화 상담 교과가 개설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성소수자 상담 교육과 훈련은 매우 초보적인 실정이다(이주영 외, 2020). 개인적인 삶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공감적이고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담자일지라도, 관련 지식이나 상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성소수자와의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idell, 2017).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은 이러한 주장을 재확인시켜준다. 이에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제고를 돕고 성소수자 상담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함의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성적지향이 양성애자로 편중되어 있어 양성애자 내담자에 비해 레즈비언과 게이 내담자의 경험이 누락되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폐쇄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소수자 상담 전문가들의 평정을 거쳐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였고, 최종 진술문에 대해 개념도 전문가와 상담심리학과 교수의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양성에 연구참여자들에게서만 도출된 문항은 진술문 9번 ‘심리검사 보고서에 양성애의 이유를 평가했다’, 진술문 12번 ‘상담자는 양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이나 동성을 선택하라는 듯이 말했다’, 진술문 42번 ‘이성 연애를 한다고 하니 상담자는 안심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양성애 연구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이나 게이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중복되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LGB 내담자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내담자들을 구분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각 성적지향에 따른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초점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면담 시간이 평균 30~40분으로 질적연구에서 제안하는 면담 시간에 비해 짧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진술문 수(67개)는 국내 개념도 연구의 진술문 수의 평균 60.77개(최운정, 2019)보다 많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LGB 내담자의 경험을 부족하지 않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결정된 군집 명과 차원 명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구하지 못하였고, 개념도 해석에 연구참여자를 참여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아이디어를 도출한 연구참여자들이 도출된 아이디어를 직접 범주화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명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집 명을 결정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LGB 내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LGB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상담 관계와 상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LGB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것이 상담 관계나 상담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상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LGB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성소수자 상담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 탐구*, 4(4), 197-232.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 김덕균 (2005).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 *유교사상문화연구*, 23, 109-134.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 169-206.
- 김선경 (2011).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2(5), 1473-1488.
- 김승섭 (2016). 동성애, 전환치료, 그리고 HIV/AIDS. *기독교사상*, 698, 31-41.
- 김우자 (2020).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일상적이고 미묘한 차별. *동방학지*, 191, 87-114.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예은, 연구진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혜민, 유금란 (2020). 개념도를 활용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17-438.
- 문영민, 박송이, 강혜린 (2019). 장애인 대학원생의 차별 및 대처 경험 연구 - 성과주의 공간의 미시적 차별에 살아남기.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123-150.
- 문성훈 (2005). 소수자 등장과 사회적 인정 질서의 이중성. *사회와 철학*, 9, 129-155.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 서영석, 이정림, 강제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성소수자부모모임 (2018). 커밍아웃 스토리. 대구: 도서출판 한티재.
- 양희선 (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리적 질적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유하은, 권경인 (2020). 성소수자(LGBT)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이해, 41(1), 91-115.
- 이경희 (2015).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적-창조적 소수자'되기. 윤리교육연구, 38, 253-279.
-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05-124.
- 이슬희 (2019).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은 (2020). 트랜스젠더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일 (2016).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3(2), 1-18.
-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 (2020).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도움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2), 577-612.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2017. 2. 14).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서울.
- 정근식 (2013).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사회, 100, 183-208.
- 정지선 (2018). 한국판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도 타당화. 인문사회 21, 9(6), 1113-1128.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정 (2019).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적 개관. 상담학연구, 20(6), 179-199.
- 최윤정, 김계현 (2007). 진로상담: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현철 (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파주: 나남.
- 통계청 (2015).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

- nw/1/2/2/index.board?bmode=read&aSeq=35817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에서 검색.
- 한국여성의전화 (2015).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23989](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23989) 에서 검색.
- 홍예진 (2019). 초심 상담자의 다문화수용성과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czyk, A., & Pitt, C. (2009). Shaping attitudes about homosexuality: The role of religion and cultural context. *Social Science Research, 38*(2), 338-351.
-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2013).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lly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79*(1), 2-4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pi/lgbt/resources/therapeutic-responses.pdf>.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dvisory Committee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Development (2014). *Implementing curricular and institutional climate changes to improve health care for individuals who are LGBT, gender nonconforming, or born with*
- DSD: A resource for medical educators*. Retrieved from <http://members.aamc.org/eweb/upload/LGBTDSD%20Publication.pdf>.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 Bergart, A. M. (2004). Group work as an antidote to the isolation of bearing an invisible stigma. *Social Work with Groups, 26*(3), 33-43.
- Bidell, M. P. (2017).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scale (LGBT-DOCSS): Establishing a new interdisciplinary self-assessment for health providers. *Journal of homosexuality, 64*(10), 1432-1460.
- Borg, I., & Groenen, P. (1997). *Modern Multidimensional Scaling. Series in Statistics* (pp. 109-134). New York: springer.
- Browne, K. (2004). Genderism and the bathroom problem: (Re)materialising sexed sites, (re) creating sexed bodies. *Gender, Place & Culture, 11*(3), 331-346.
- Bryan, S. (2017). *LGBT microaggressions in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Michigan, USA.
- Constantine, M. G.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gainst african american clients in cross-racial counse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1-16.
- Fisher, A. (2015. 11. 19). *How microaggressions can wreck your business*. Fortune. Retrieved from <http://fortune.com/2015/11/19/microaggressions-talent-business>.
- Galgut, C. (2005). Lesbians and therapists-the need for explicitness. *Counselling and*

- Psychotherapy Journal*, 16(4), 8-11.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pp.12-28). Pittsburg,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 Gonzales, L., Davidoff, K. C., Nadal, K. L., & Yanos, P. T. (2015). Microaggressions experienced by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An exploratory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8(3), 234-241.
- Hughes, M. (1997). Symbolic racism, old-fashioned racism, and whites'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In S. A. Tuch & J. K. Martin (Eds.), *Racial attitudes in the 1990s: Continuity and change* (pp. 45-75). Westport, CT: Praeger.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Kane, ML.,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pp. 1-25). CA: SAGE Publishing.
- Kruskal, J. B. (1964).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Psychometrika*, 29(2), 115-129.
- Kunkel, M. A., & Newsom, S. (1996). Presenting problems for mental health services: A concept map.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8(1), 53-64.
- Lee, T. S. (2006). Beleaguered success, Korean evangelicalism in the last decade of twentieth century. In R. E. Buswell & T. S. Lee (Eds.), *Christianity in Korea* (pp. 330 - 3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GBT 상담연구회 (2019). LGBQQIA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역량 번역. Retrieved from [http://krcpanew.miraefnfo.kr/bbs/view.asp?page=1&rows=20&task=ins&bid=bid\\_4&bord050Seq=291715&boStartDate=2018-10-01&boEndDate=2020-10-16&bord050Optioni=&searchText=lgbt](http://krcpanew.miraefnfo.kr/bbs/view.asp?page=1&rows=20&task=ins&bid=bid_4&bord050Seq=291715&boStartDate=2018-10-01&boEndDate=2020-10-16&bord050Optioni=&searchText=lgbt).
- Lott, B. (2002). Cognitive and behavioral distancing from the poor. *American Psychologist*, 57(2), 100-110.
- MacDonald, K.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n psycho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John F. Kennedy University, California, USA.
-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38-56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orrison, M. A., Morrison, T. G., & Franklin, R. (2009). Modern and old-fashioned homonegativity among samples of Canadi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4), 523-542.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dal, K. L., Skolnik, A., & Wong, Y. (2012). Interpersonal and systemic microaggressions toward transgender people: Implications for

- counseling.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6(1), 55-82.
- Nadal, K. L., Issa, M. A., Leon, J., Meterko, V., Wideman, M., & Wong, Y.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Death by a thousand cuts"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LGBT Youth*, 8(3), 234-259.
- Nadal, K. L., Issa, M-A., Griffin, K., Hamit, S., & Lyons, O. (2010). Religious microaggressions in the United States: Mental health implications for religious minority group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pp. 287-310). NY: Wiley & Sons.
- Nadal, K. L., Rivera, D. P., & Corpus, M. J. (2010). Sexual orientation and transgender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Experiences of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 individual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pp. 217-240). NJ: Wiley & Sons.
- Noh, S., Kaspar, V., & Wickrama, K. A. (2007). Overt and subtle racial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Preliminary findings for Kore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7), 1269-1274.
- Ong, A. D., Burrow, A. L., Fuller-Rowell, T. E., Ja, N. M., & Sue, D. W. (2013). Racial microaggressions and daily well-being among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188.
- Pachankis, J. E., & Goldfried, M. R. (2004). Clinical issues in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3), 227.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1), 86-93.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 Pew Research Center. (2010).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Major Religious Groups as of 2010*. Retrieved from <https://www.pewforum.org/files/2014/01/global-religion-full.pdf>.
- Platt, L. F., & Lenzen, A. L.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60(7), 1011-1034.
- Rich, T. S., & Eliassen, I. (2020). Proximity, contact and tolerance of homosexuals in Korea: evidence from an experimental survey.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3), 195-211.
- Rivers, B., & Swank, J. M. (2017). LGBT ally training and counselor competency: A mixed-methods study.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11(1), 18-35.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10-221.
- Smith, T. W. (2011).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81m7x7kb.pdf>.
- Spengler, E. S., Miller, D. J., & Spengler, P. M.



- (2016). Microaggressions: Clinical errors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Psychotherapy, 53*(3), 360-366.
- Sue, D. W. (2017). Microaggressions and “evidence” empirical or experiential re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1), 170-172.
- Sue, D. W., & Capodilupo, C. M. (2008). Racial,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 105-130.
- Sue, D. W., &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4th ed). NY: Wiley & Sons.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zymanski, D. M., & Ickizler, A. S. (2013). Internalized heterosexism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heterosexist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sexual minority me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4*(2), 211-219.
- Trochim W. M. K. (1993. 11). *The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Paper 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Dallas, Texas.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4).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Retrieved from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원 고 접 수 일 : 2021. 02.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5. 03  
게 재 결 정 일 : 2021. 09. 24

## **A Concept-Mapping of Counselors' Microaggressions Experienced by LGB clients**

**Hye-min Kim<sup>1)</sup>**

**Kum-lan Yu<sup>2)</sup>**

<sup>1)</sup>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lecturer

<sup>2)</sup>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The study explored counselors' microaggression toward LGB clients in the counseling process. A total of 19 LGB adults participated in an in-depth interview and they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with microaggression in the counseling process. The data were explored by concept-mapping method, and a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and cluster analysis were utiliz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microaggression toward LGB clients. The findings revealed two dimensions (i.e. 'intrude vs. keep distance' and 'conventional response vs. counselor response') five clusters(i.e. Excessive focus on Non-Heterosexual Orientation, Heterosexism, Problematization,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LGB, Exoticiz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LGB clients, counselor's microaggression, LGB counseling, LGB discrimination, concept-mapping